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솔로몬군도

Solomon Islands

2019년11월22일 | 책임조사역(G3) 이자호

- 국가개황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 · 사회동향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면적 29천 km ² 	인구 62.7만 명 (2018년) 	정치체제 영국식 의원내각제 	대외정책 친서방정책 
GDP 13.8억 달러 (2018년) 	1인당GDP 2,197달러 (2018년) 	통화단위 Solomon islands Dollar (SI\$) 	환율(U\$기준) 7.95 (2018년) 

□ 솔로몬군도는 파푸아뉴기니 동쪽, 호주 북쪽 남서태평양에 위치한 군도(群島)국으로, 197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였으며 영국 여왕을 국가원수로 삼고 있는 영연방 국가임.

□ 근로자의 약 75%가 농업에 종사하는 등 경제구조가 단순하며, 대체로 제조업 기반은 취약한 상황임. 또한, 기후변화에 민감한 지역에 위치하여 연간 자연재해 관련 직·간접 비용이 높음.

□ 2019년 4월 총선 결과 소가바레(Sogavare) 전 총리가 2014년 이후 4번째로 총리로 선출되었음. 종족 간 갈등으로 심화된 사회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2003년 호주를 중심으로 2017년 6월까지 솔로몬군도 지역지원단(RAMSI)을 파견하는 등 사회불안 요인도 내포하고 있음.

□ 최대 수출국이자 공여국인 호주와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9년 9월에 기존에 사회 전반에 걸쳐 원조자금을 지원받았던 대만과 외교관계를 단절하고 중국과 새로 외교관계를 수립함.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78. 9. 15 수교 (주 파푸아뉴기니 대사 겸임)

주요협정 어업협정('80), 무상원조협정('12)

교역규모

(단위 : 천 달러)

구분	2016	2017	2018	주요품목
수 출	18,661	20,934	23,102	석유제품, 자동차,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수 입	13,804	9,728	9,751	목재류

해외직접투자현황(2019년 6월말 누계,총투자기준) 6건, 29,325천 달러

주요 경제지표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f
경제성장률	2.5	3.2	3.7	3.9	2.7
소비자물가상승률	-0.6	0.5	0.5	2.7	0.4
재정수지/GDP	0.0	-3.9	-4.4	0.7	-2.3

자료: IMF,

구조적취약성

• 벌목업, 중국 등 특정 산업 및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

- 총수출에서 벌목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73.6%이며, 이중 절반 이상(56.2%)이 중국으로 수출되는 등 특정 산업 및 국가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음.
- 최근 기후환경 악화, 남벌 등으로 삼림 파괴가 가속화되어 지속 불가능한 수준에 이름. 이에 2017년 3월 임업부가 신규 벌목업체 및 삼림조합 비회원에 대해 벌목면허 발급을 중단함에 따라 경제적 타격이 예상됨.

• 기후 변화에 취약한 지리적 환경

- 태풍, 지진, 해일 등 기후변화에 매우 취약한 지리적 환경으로 인해 자연재해 방지를 위한 재정지출이 GDP의 0.5%, 재해 발생 시 평균 복구비용이 GDP의 15%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산출되었으며, 기후 변화로 인해 농업생산성 감소 등 경제적 타격도 발생하고 있음.
- 2016년 12월에 발생한 규모 7.8의 지진으로 인해 솔로몬군도 3개 주에 걸쳐 7,000여 명이 재산 피해를 입었으며, 학교 등 공공 인프라 시설이 파괴되는 등 상당한 피해가 발생함.

성장잠재력

• 미개발 광물자원 개발을 통한 성장가능성

- 니켈·보크사이트 등 미개발 상태의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자원개발에 따른 성장가능성이 있음.
- 2017년 3월 정부는 중단되었던 Gold Ridge 광산에 대한 개발권을 복원하였으며, 도로 재건 등으로 인해 지연되었으나 향후 생산 재개로 광물자원의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관광산업, 성장 잠재력 보유

- 정부는 별목업을 대체할 신성장동력으로 관광산업을 우선순위로 두고 2015년 국가관광개발계획(National Tourism Development Strategy, 2015-2019)을 수립하여 관광부 재건, 관광기금 조성, 제도 개혁 등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환경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동국 통계청에 따르면 관광객 수는 2018년 역대 최고인 27,886명(전년대비 12% 증가)을 기록하는 등 해양 및 크루즈 관광업이 성장 잠재력을 보유함. 정부는 2020년까지 약 50,000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2030년까지 일자리 창출, 지역 관광 활성화 등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함.

정책성과

• 2019년 7월 해저 케이블 건설 착수, 국민 생활수준 향상 기대

- 2018년 6월 솔로몬군도는 호주와 총 4,700km의 해저케이블(Coral Sea Cable System) 건설 계약을 체결하였고, 올해 7월에 착공됨. 이 중에는 솔로몬군도 내 730km 구간(Honiara~Taro)이 포함되어 있으며, 오는 2020년 3월에 완공 예정임. 동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파푸아뉴기니 및 솔로몬군도는 각각 약 20 테라바이트(TB) 수준의 용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해저 케이블 개통은 현재 12% 수준에 머물러 있는 양국의 인터넷 접근 비율을 획기적으로 제고하여,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개선되고 전자상거래 등 관련 산업 투자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해저케이블 경로



* 자료: Submarine Networks

• 태평양 제도 포럼 회원국 간 PACER-Plus 체결

- 2017년 6월, 호주·뉴질랜드 및 9개 태평양 도서국가 간에 '긴밀한 경제관계를 위한 태평양 협약'(Pacific Agreement on Closer Economic Relations, PACER Plus)이 8년여의 협상 끝에 호주에서 체결됨.
- 동 협약은 상품·서비스·투자 등과 관련하여 태평양 제도 포럼(Pacific Islands Forum) 역내 FTA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①일자리 창출, ②삶의 수준 향상, ③태평양 지역의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목표로 하며, 향후 솔로몬군도와 주변국 간 무역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정치동향

- **소가바레 총리 취임, 2014년에 이어 4번째 총리직 수행**
- 2019년 4월 총선 및 총리투표 결과 마나세 소가바레(Manasseh Sogavare) 전 총리가 찬성 34표, 기권 15표, 무효 1표의 개표 결과에 따라 총리직에 선출됨.
- 이번 총선에서는 50석을 놓고 336명의 후보들이 경쟁 하였으며, 선거 결과 무소속 후보자가 21석을 차지 하였으나 지난 선거 32석보다는 줄어든 의석을 확보함.

사회동향

- **RAMSI 종료 후 첫 의회 선거 이후, 호주와 뉴질랜드의 지원 속 대체로 정치적 안정세 유지**
- 최근 10년 간 7차례나 총리 교체가 발생하는 등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되었으며, 2017년 6월 호주에 의해 주도된 '솔로몬군도 지역지원단'(RAMSI)의 활동이 종료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이번 의회 선거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호주와 뉴질랜드가 질서 유지에 대한 지원을 하였음.
- 선거 직후 수도 호니아라에서 일부 시위가 발생하였으나, 이후 전반적으로 안정을 되찾음.
- **부족 간 갈등이 내재되어 불안요소 상존**
- 과달카날계 부족과 말라이타계 부족 등 인근 섬에서 유입된 이주민 간 갈등으로 정세 불안을 겪고 있음.
- 종족 간 무력 충돌, 내부 치안상황 개선을 위해 2003년 호주·뉴질랜드를 주축으로 파견된 RAMSI의 경찰 인력이 솔로몬군도의 치안 유지를 지원하였으나, 2017년 6월 RAMSI가 철수한 이후 자국 경찰 재무장에 따른 혼란 재발 가능성 등 불안요소는 여전히 상존함.

국제관계

- **2000년대 후반 이후 호주와의 긴밀한 우호관계 지속**
- 호주는 RAMSI가 종료된 이후에 여전히 솔로몬군도에 대한 주요 지원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 동국은 호주와 2017년 6월 '원조 동반자 협약'을 체결하는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함.
- 호주도 대양주 지역에서 점차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솔로몬군도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18.7월~'19.6월 중 호주의 동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약 1.35억 달러에 이르며, 주로 안정성 제고(13%) · 경제발전(41%) · 인간개발(19%) 분야에 대해 지원하고 있음.
- **대만과 단교, 중국과 외교관계 수립**
- 대만은 솔로몬군도에 2014년 홍수피해 복구자금 3백만 달러 등 원조자금을 지원해 왔으며, 솔로몬군도는 2007년 대만의 UN가입을 지지하는 등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해 왔으나, 올해 5월 소가바레 총리는 대만과의 외교관계를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함.
- 중국 정부는 대규모 자금 지원을 통해 대만 주도의 원조 현상을 타개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으며, 소가바레 정부는 피지·파푸아뉴기니·사모아·통가·바누아투 등 중국의 원조를 받는 국가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베이징을 방문하는 등 중국과의 외교관계 구축을 추진한 끝에 지난 9월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함.

외채상환태도

- IMF 등 주요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차관 지원

- IMF로부터 2010~11년 대기성 차관(Stand-by Credit Facility)*, 2012년 이후 1.5백만 달러 규모의 포괄적 차관(Extended Credit Facility)** 등을 지원받고 있음. 또한 2014년 ADB는 교통 인프라 투자 등을 목적으로 15백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제공하였음.

* 지급불능 사태에 빠진 회원국의 단기적 대응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

** 저소득국에 대한 IMF의 중기적 지원수단으로, 지원조건은 이자율 0%, 상환기간 10년(거치기간 5.5년 포함)

- 외부 원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외부충격 발생 시 외채상환태도 악화 우려

- 2017년 기준 대외 원조자금(1.9억 달러)이 GDP(12.9억 달러)의 약 15%를 차지하여 솔로몬군도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여국의 원조 중단 등 대외충격에 취약함.
- 현재 공공부채는 GDP 대비 10% 수준으로 안정적이거나, 향후 2023년 Pacific Games 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채무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IMF는 향후 원조 감소 등 대외충격으로 저성장세가 고착화될 경우 동 비중이 38%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외채상환태도가 악화될 우려가 있음.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Moody's	B3 ('19.10.)	B3 ('17. 10)

-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현황

- Moody's는 2019년 10월 동국에 대하여 낮은 정부부채 규모, 주변국들의 꾸준한 대외원조 등 긍정적인 요소와 자연재해에 대한 취약성 및 목재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점 등 부정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기존 신용등급인 B3를 유지함.

- 솔로몬군도는 인구가 적고(63만 명) 군도국으로서 국토가 지리적으로 흩어져 있어 높은 물류비용이 발생하는 등 경제성장에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으며, 수출의 92%가 농산품 및 원재료(목재 포함)로 산업구조가 취약함.
- 2018년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3.7%) 대비 소폭 상승한 3.9%를 기록하였으나, 재정적자 규모가 GDP 대비 -5.2%로 확대되었으며 향후 2023년 Pacific Games 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모니터링이 필요함.
- 2014년 취임한 소가바레 총리가 2017년 11월 의회의 불신임을 받는 등 정국이 불안정하였으나, 2019년 4월 총선 결과 네 번째로 총리로 선출됨. 2017년 6월 치안유지를 위한 RAMSI의 활동 종료 이후에도 호주 등 인접 국가들이 동국의 치안유지를 위해 지원을 하고 있음.
- 2012년 이후 적정 수준의 외환보유액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나(2018년 5.8억 달러), 경제규모에 비해 대외의존도가 높은 상황으로 공여국의 상황변화 등 외부요인에 대한 대응능력이 취약한 상황임.